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11월 1일 (제81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진리 중의 진리

얼마 전에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다. 마음 한 편이 허전하기도 하고,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걱정도 된다.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는 줄 알고 산다. 그러나 진리 중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사람은 죽는다는 것,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것이 진리다.

전도를 하다보면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만난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자기의 돈을 믿고, 자기의 권력을 믿겠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죽으면 그 돈이 뉘 것이고,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죽기 전에 믿겠다는 사람이다. 헛웃음이 나온다. 죽는 날을 모르는데, 내일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기 전에 믿겠다는 것인지...

인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그래서 잘 낚다고, 배웠다고, 가졌다고 큰소리 칠 것이 없다. 그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이다. 사실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죽어봐야 알지’ 하는 사람들,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 그 때 후회해도 자비는 없다. 그것이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다. 명절에 미리 고향 갈 차표를 예약해놓으면 그날 시간 맞춰 나가면 고향에 갈 수 있다. ‘그 때 가서 하지’ 하면 이미 늦다. 천국 가는 예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살아 있을 때 그분을 영접하면 천국행 티켓을 사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 매력을 맛보시라. 죽음 다음의 세상은 분명히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장성 예루살렘 기도원에서 추계산상집회가 진행되었다. 영적 보약을 먹으려는 성도들로 기도원은 가득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다.

첫날 첫 시간 등단하신 총회장 목사님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그 분은 원칙이 있는 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나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세 번 기도하는 원칙을 지켰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사과나 배나 감 등 수확되기 전의 모든 과일은 파티장인 출하장에 나가기 위해 색깔을 더 예쁘게 내려고 애쓰고, 포장도 예쁘게 합니다. 질에 따라 백화점으로, 마트로, 재래시장으로 나가고 혹은 폐기처분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도 질이 좋으면 천국에 데려가 상과 면류관을 주고, 질이 나쁘면 폐기처분장인 지옥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절대 우리를 폐기처분 안하시리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음식이 썩으면 아까워도 버리듯 하나님도 원칙에서 벗어난 자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직한 자, 진실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겔13:8). 셋째, 죄와 피 뿌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전처럼 죄와 싸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12:1~2).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어도 규칙에 위배된 것이 발견



추계산상집회 (2015. 10. 26~29,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나하면 본 바요, 만져본 바요, 경험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지만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시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삼하2:6~7). 그 원칙의 기준은 무엇이나? 질이 좋으면 높이시지만, 질이 좋지 않으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 신앙의 질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마6:33).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양 떼를 잘 살피고, 직분자들은 자기의 직분을 성실과 충성된 마음으로 행해야 하며,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일을 먼저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자는 그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되면 그 메달을 다시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서 주었던 것을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폐기처분 시킬 수도 있는 그 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원칙, 곧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는 자가 됩시다.”

깨닫는 것이 최대의 복이다. 추계산상집회를 통해 깨닫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기도하는 목회자들



아름답게 꾸며진 기도원



몸도 뚼뚼, 영혼도 뚼뚼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겔34:1~26)

주식도 하시고 배양기도 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롬8:3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무엇이든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안 주겠느냐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무엇이든 다 주시는 하나님이 배양기도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분은 당신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자에게는 주셨던 것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에덴동산을 지어주신 하나님은 마귀의 꾀에 빠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자 아담에게서 에덴동산을 빼앗으셨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자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넘기셨습니다(행13:21~22).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는 재물과 지혜와 장수까지 주셨지만, 그런 그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들이면서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우상들을 섬기게 되자 이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언약과 내게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왕상11:11).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후대에 나라가 찢기었고, 솔로몬의 군대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열 지파를 규합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이끌고 남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당신은 교회의 디딤돌인가 아니면 교회의 걸림돌인가

아하수에로 왕도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왕후 와스디를 폐하고 고아 출신 에스테를 택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에1, 2장).

우리는 목사, 장로가 영존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영존직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직분에 충실치 않으면 빼앗으십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아비아달에 관해 적혀 있는데요, 아비아달은 사울과 다윗 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 84명을 죽였을 때 유일하게 그만이 살아 다윗에게로 피했고, 다윗이 왕이 되자 사독과 함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말년에 아비아달이 솔로몬을 반역하자 솔로몬은 그에게서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한 번 목

사로 기름 부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군의 마음에 합당치 않으면, 직분에 해이하고 나태하면 영존직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찌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겔34:10). 연약한 양을 붙들어주고, 상처 입은 양을 싸매주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배고픈 양을 먹이는 것

이 목자가 할 일인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배만 채

우기에 급한 자는 하나님이 목자들을 대적하

여 양을 빼앗아 직접 살진 꼴을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직분을 빼앗겠다는 것이고, 17절의 말씀처럼 기억했다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는 물론이요, 권사나 집사, 조장 구역장 직분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직분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직분에 충실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27:23),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

직분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십니다. 잘 하는 자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의 포도원의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핑계나 대는 자를 주인이 그 일을 빼앗아 잘 하는 자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것

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군이 되었노라”(엡3:7). 그런데 주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일에 나태하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결국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인천교회에서 젊은이들의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요, 장로요, 교회 직원들까지 이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천교회 일이나 인원이 알아서 하겠지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불러

놓고 제가 난리를 쳤습니다. 언제부터 서울교회, 인천교회 했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니다. 집안 행사가 있으면 서로 일을 분담하고, 서로 격려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는 에스겔서 44장 8절의 말씀처럼 자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열심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라 그래도 끝까지 다들 데리고 가겠지만 하나님은 인내하고 인내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직분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이제 서울교회가 새성전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배가를 이뤄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닫고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때문에 이사해서 직분을 그만 둔다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빼앗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것도,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해서 그만 두는 것도 당신이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만두면 안 됩니다. 조장 구역장도 그렇고, 성가대원, 안내위원도 교회서 ‘그만 쉬십시오’ 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만일 부득불 사정이 있어 그만뒀아 할 때에는 교회에서 허락을 받은 후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자식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부모에게 효도할 때이고, 엄마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직분에 충실할 때이고, 목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

변질되면 버림받고 변화되면 사랑받는다

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양 떼는 살피고 먹일 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마25:21).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 맛디아에게 직분이 넘어갔음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생명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실 것이며, 우리 교회가 영의 직분에 소홀하면 다른 교회에게 쫓대를 넘기실 것이며, 내가 복음의 일에 나태하면 다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은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행1:20).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열심히 맡은 바 일에 충성합시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3:11).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칼럼::

변화와 적응력

시중금리가 낮으면 통화량의 팽창으로 인하여 그에 따르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민생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양적완화의 축소뿐만이 아니라 금리인상을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겠다고 2014년 중반부터 공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가의 실질적인 생필품에 대한 공급처이자 그들의 기술집약설비 및 농산품에 대한 주요 수요처 역할을 해온 중국에서 급작스럽지만 예견된 발표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신흥국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과급효과를 과약할 수 있도록 했고, 이로 인하여 연방준비은행은 금리인상에 대한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최근 관계당국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국내의 500대 기업 중 10%, 상장회사의 14%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이런 현상에 대한 배경을 과도한 중국의 투자, 그리고 업종의 경쟁심화 등 외적인 요인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의견은 기업이나 가계의 금융기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친 것에 대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즉 금융기관이 외형, 정부의 방침, 공익기관으로서의 명분 추구보다는 주주와 자사의 이익, 그리고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관리에 최우선했다면, 건설업 부양정책의 산물인 가계부채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고, 또한 분야별로 적자생존의 원칙이 가감 없이 적용되었다면, 대기업에만 종속되지 않고 끊임없는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강소기업들

이 외부환경에 더욱더 유연히 대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영자문회사 M사의 대표는 '위기를 맞아도 무너지지 않고 빠르게 재생하는 능력'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 정의하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아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배우고 적응하여 회복하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는 다른 여타 아프리카 영국식민지 국가와 다르지 않게 잘못 도입된 민주화 제도로 인해 개인 간은 물론 자국에 있는 정부기관 및 은행을 포함한 제도권의 모든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보니까 이를 잘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방대한 자원의 이권을 내어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소수의 서양인들이 방대한 아프리카를 지배하며 자신 및 국가발전에 공헌했는지를 체득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이든, 가계가든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을 무시한 채 안주하며 국가와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주기에 기대하기 보다는, 내가 어떻게 생존하고 기여할지 찾아야 하는 시점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지난 15년간 어떤 대내외적인 위협이나 고난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전 세계의 대도시부터 오지까지 다니시고 계십니다. 물론 목적은 다르지만 그분의 엔진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임윤석

내 인생 가을 길에서

가을~

나~ 그대~ 언젠가 피할 수 없는 순간

살아온 세월 뒤돌아보며 좌우를 보겠지

황금들녘 메뚜기 뛰며 고추잡자리 춤추며 노래하니

해바라기도 마주보며 팔~팔~팔~ 웃어대고

호박꽃 활짝 웃으며 나팔 불며 향수 뿌리누나~

울긋불긋 감 사과 석류 모과 포도 배 웃 갈아입고 파티 갈 준비 바쁘구나~

메마른 콩 팔 따가운 햇살에 나도 가자며 터져 나오며 외치니

고개 숙인 수수 축하 한다 바람에 박수치고

고구마 캐는 아낙네 웃음소리 즐겁기 그지없는 풍경

도토리 알밤 떨어지는 소리에 화들짝 놀래도 다람쥐 춤추며 종아라 뛰놀고

맑은 실개천 웅덩이 송사리 떼 춤을 추누나

어미 소 집 달구지 가득 싣고 농부와 미소 진 얼굴 종아라 침 흘리니

뒤따르는 송아지 울음소리 음매~ 음매~ 음매 풍요로운 가을들녘 노랫소리

푸른 하늘 기러기 떼 V자 즐겁게 얘기하며 여행길 찾아 미련 없이 떠나누나~

우리도 언젠가 저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낙엽 뿌려주는 오색길 손잡고 아름답던 얘기하며

겨울 맞으려 부활의 꿈 안고 그대와 함께 가겠지

후회 없이 살았다 얘기하며~~

2015.10.25. 기도원 가을집회 가는 길에

朋友 이초석

::교단소식::

해운대 예수중심교회 창립예배



해운대 예수중심교회 창립예배 (2015. 10. 20)

부산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섰다. 지난달 20일 해운대 예수중심교회가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예배를 드렸다.

총회장 목사님은 이 날 '잘 먹고 죽은 시체는 때깔도 좋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오늘 제목을 듣고 여러분은 웃었습니다만 웃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하도 자식이 불효를 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 피골이 상접하자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나 좀 잘 먹여달라'는 말입니다. '네가 불효하는 걸 좀 깨달라'는 말이지요.

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고 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잘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잘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십일조를 왜 해야 하는지 가르쳐 성도들이 말라가서 3장의 복을 받게 해야 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야 하며, 이 땅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 예배소서 6장의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목사는 가르칠 목(牧), 스승 사(師)를 씁니다. 일 사(事)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 전도사의 인격이 갖춰져야 합니다. 음식 맛이 아무리 좋아도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그 음식점에 다시 가지 않는 것이 손님들의 속성입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함은 물론이고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처럼 노인을 부모처럼, 젊은이를 형제처럼, 젊은 여자를 깨끗함으로 자매처럼 대하고, 과부나 어려운 자를 우대하면 이 교회가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인정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의 소유자요, 다윗 같이 통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못 쓰겠다, 저 사람은 저래서 못 쓰겠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은 이래서 쓸 만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쓸 만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 손톱 같이 날카로운 자라도 다 쓸모 있다는 겁니다. 무용한 것을 용하게 쓸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둑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떼고 저것 떼는 장기 목회를 한다면 결국 문 닫을 날만 받아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지교회를 순방하면서 말하는 것이지

만 지역목회란 그 지역에서 인심을 얻고,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인사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늘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주어야 하고 늘 깨끗한 차림으로 다녀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으로 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용기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교회 창립에 도와주신 분들을 일기에 쓰세요. 그것이 은혜를 잊지 않는 최선의 길입니다."

목사님은 유 전도사에게 일일이 성경을 읽게 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부흥하고 발전하는 해운대 예수중심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제2회 JPD & Tehillim 연합찬양제



제2회 JPD & Tehillim 연합찬양제
(2015. 10. 24, 인천예수중심교회)

지난 10월 24일 인천예수중심교회에서 젊은이들의 찬양제가 열렸다. ‘Let’s do it!’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연합찬양제는 기도과 찬양과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름다웠으며, 그들의 모습은 열정적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진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시대 목사님은 ‘도전이 없이는 발전도 없다’는 주제로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강조하셨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인생에 발전이 있는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이 역경지수(AQ)를 키우라고 하지 않던가. 역경지수를 높이려면 역경에 봉착해봐야 할 것 아닌가.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다.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도전하는 젊은이가 되라.” 이어 총회장 목사님께서 등단하셔서 젊은이들을 격려하신 후에 이 행사에 협조하지 못한 목회자와 직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대로 광고가 되지 않아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광고의 중요성을 말했건만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자들이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또한 행정실과 직원들이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하니 내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목사들도 이런 잔치에는 다 참석해서 격려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집안 잔치가 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교회는 뭐고 인천교회는 뭐가. 다들 한 가족 아닌가.

변화되어야 한다. 정신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썩은 정신을 잘라내고 바로 서야 이 교회에 부흥이 있다.”

목사님의 울부짖음은 목사님 안에서 뿔어져 나오는 성령님의 통탄이었고, 서울교회 새성전 입성을 앞둔 목회자들과 직원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이번 청소년 찬양제는 많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었다.

신묘수
jesus7857@gmail.com

Good News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을 구경하던 중 한 곳을 방문했는데, 여러 천사들이 뭔가를 열심히 아주 단단하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궁금해서 천사에게 무엇을 포장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 하는 말, “예! 사람들에게 전해줄 축복과 응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천사는 “이것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축복과 응답이란 선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천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천사님!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은 어떻게 열 수가 있나요?”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고난이라는 포장지 열려 축복과 응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보십니다. 장사꾼이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의 인물이나 학벌을 보지 않고 오직 돈만 보고 물건을 내주는 것

처럼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보십니다. 믿음이 됩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인생과 신앙의 성장촉진제요, 항암제요, 방부제며, 소독제요, 축복과 응답의 문을 여는 비밀의 열쇠인 것입니다.

축복과 응답은 이미 당신에게 배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포장지를 벗기지 못한 것뿐입니다. 감사, 또 감사하세요. 그러면 단단하던 고난의 포장지가 벗겨지고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선물을 안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나도 건강할 수 있다::

녹용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법

녹용은 늦봄에 저절로 떨어진 사슴의 뿔 자리에 새롭게 자라기 시작한 어린 뿔이다. 이 어린 뿔은 한창 성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칼슘, 히알루론산, 콜라겐 등, 뼈와 연골의 성분이 풍부히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과 호르몬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 측면에서 몸을 보호하는 최고의 약재로 손꼽히기 때문에 중국 최초의 약물학 전문 서적인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서부터 유네스코에 등재된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비롯한 수많은 문헌에 기록되어져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녹용이 ‘허로(虛勞)’라는 병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는데, 허로란 쉽게 말해서 큰 병 후 몸이 쇠약해진 상태, 만성피로증후군, 면역력저하 등을 의미한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쇠약해진 면역력을 보강시켜줄 뿐 아니라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어 환절기 보약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녹용은 우리 몸의 부신 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촉진시켜주어 피로나 병에 대해 이겨낼 수 있는면역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된다. 녹용의 주요 약리 성분인 ‘판토크린’이 조혈 세포의 혈액 생성을 촉진시켜주어 골수 세포 및 심장 박동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 소아 성장발육 촉진과 청장년 및 중년의 건강 유지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이렇듯 녹용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약재라고 할 수 있지만, 열이 많고 건강하고 찬물을 좋아하는 내열이성한 체질의 사람이 녹용을 복용하게 되면 몸의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질을 알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인들은 신체 내에 허증과 실증이 섞여있는 경우들이 많다. 즉 신체의 특정 부위는 실하고 다른 부위는 허함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이다. 영양이 충분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여 체내 열은 많이 쌓여 있

지만, 스트레스나 과로로 피로하거나 기력이 없는 것도 이러한 사례에 속하기 때문에 녹용이 들어간 한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해야 한다. 특히나 열이 많은 아이들의 경우는 좀 더 주의를 하여야 한다. 성인의 경우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들은 대개 체내에 열이 많은 경우가 많다.

녹용을 복용하여 피로감을 개선하더라도 체내 열을 내려주는 약재와 배합을 해야 열은 내려가고 체력은 올라가게 되어 몸이 건강해진다. 예를 들면 녹용에다가 열을 내려주는 맥문동, 치자, 연자육과 같은 약재들이 배합이 될 때, 신체의 밸런스가 맞추어지며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진짜 보약이 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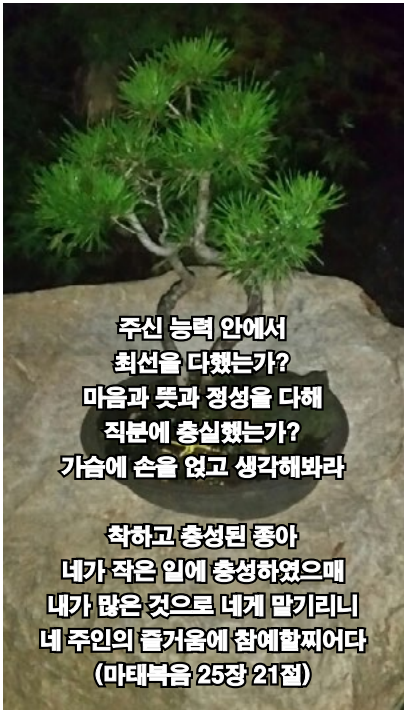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무거운 짐 덕분에!

일본기업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파나소닉의 창업자이며 ‘경영의 신’으로 불린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숏한 역경을 극복하고 94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성공신화를 이룩한 분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업가로 크게 성공한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인생에 필요한 장점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꾸준히 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덕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스 승으로 여기고, 모르면 열심히 묻고 배우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하니 참 멋진 인생입니다. 남들 같으면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고,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며 주저앉을 상황을 ‘덕분에’로 둔갑시켜 성공의 비결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오래전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는 강연을 해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앞에서 그는 지리산 등반 때 일화를 소개하면서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 벗어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열어보니 먹을 것이 가득했다.”면서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덕분에’가 감사라면 ‘때문에’는 원망입니다. 배낭의 무거운 짐 ‘때문에’를 극복하고 정상에 올라가보니 배낭에 먹을 것이 가득한 ‘덕분에’의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물살이 센 냇가를 건널 때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이 실려 있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무거운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해줍니다. 결국 내 어깨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지켜주고 만족케 해줬으니 참으로 ‘고마운 짐’ 아닐까요?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직분에 충실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